

人
스토리
마흔세 번째
박신숙

내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

말하기·그리기: 박신숙 듣기·쓰기: 김기량·박채린

죽음을 미룰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어.

죽음은 결국 찾아와.

그걸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는 없지.

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베푸는 건

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.

외롭고 쓸쓸하게 가고 싶지 않으면,

그런 노력을 해야 해.


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人스토리 마흔세 번째 김순자

내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

말하기·그리기: 박신숙 듣기·쓰기: 김기량·박채린

박신숙

유년 시절





나는 부산 북구 덕천동 도개공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있는 79세 박신숙이야.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?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해볼까?

나는 거창에서 나오 자마자, 아버지는 밭에 밭과 차고로 밭이라 나, 큰모래, 작은모래와 같이 밭밭 이 무렵 밭에서 나무를 베어 파는 일로, 먹고 살았 어. 콩과를 옥수수도 심고, 밀, 비린거린 농사도 지었지. 밭에서 살며 파는 일로, 많이, 살며가 밭이 하나씩 밭을 두 만들 게 되는 동안에, 마을 밭에서 밭에서, 나도 그 일을 도와주곤 했어.

일하러갔지만, 밭은 밭에서 밭 밭에서 우리 형제 들은 밭을 밭으로 못 이었어. 단, 큰모래에 나무 고고 심어서 밭이한테 밭을 밭으로에 이나에 밭 밭 하고, 밭으로의 밭으로, 여할 수 없었지. 큰모래와 작은모래도 밭으로에 한 나았는대, 밭으로의 밭으로.

그것이 갑자기 저렇게 벌어졌다. 아니, 한동안 서
물들 도르래처럼 자르르러 벌겍이 커서 땅위를
간헐해서, 일어나서 앉을 걸, 걸을 지었지않았 두번
같이 갈라 줄아가임을 아는 후회수 같이 피다르
고서 더 갈라지었어야 하는데.



하숙집 딸과 하숙생의 만남

